

# 저가수입으로 인한 감사품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신찬휴\*, 김정교\*\*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 The Effect of Audit Fee Dumping on the Audit Quality

Chan-Hyu Shin\*, Jeong-Kyo Kim\*\*

Institute of Management Research,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감사업계는 낮은 회계투명성의 원인을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수익계약으로 보고 있다.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고용하면서 낮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며, 이론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는 감사자원 투입의 저하를 초래하여 감사품질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산업별로 감사보수가 평균보다 낮은 감사인을 저가수입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가수입이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와 관련된 여러 정책개발에 실증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 저가수입, 감사보수, 감사품질, 회계감사, 회계투명성

**Abstract** These days, people distrus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firms in Korea. It can increase the capital costs and reduce profitability of firms. Auditors say that one of causes on the low grades of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s free contracts between auditors and firms. Firms want auditors take low audit fees. In principle, if auditors take low audit fees, they cannot input auditor resources to proper audit. However, there are not any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audit fees dumping and the audit quality. This study defines dumping auditors if their audit fees are lower than the average of industries, and examines whether these auditors showed low audit qualities or not. As a result, firms which are audited by dumping auditors presented low abnormal accruals. We can interpret this result as that dumping auditors have low audit qualities. This result helps to make policies to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firms.

**Key Words** : Audit fees dumping, Audit fees, Audit quality, Auditing, Accounting transparency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서 외부감사인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대형 조산사 중에 한 곳은 수년간의 회계부정을 저질렀으나,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소위 BIG4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Received 27 September 2017, Revised 27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eong-Kyo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jkim@pusan.ac.kr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감사인 중의 하나인 A법인은 회계부정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이사회 의 경영감독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평가대상 63개국 중에 꼴지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여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감사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낮은 근본적 원인을 감사대상인 기업이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감사보수 자율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정감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현상은 저가수입인데, 이론적으로는 저가수입을 통해 감사보수를 적정 수준보다 낮게 수취하면 감사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면서 시장 전반의 감사품질을 악화시킨다.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수취하면서도 감사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자원을 적정 수준 이하로 투입하게 되고, 감사자원 투입의 감소는 감사품질의 감소로 연결된다. 이러한 저가수입이 시장에 만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전반의 감사품질이 감소하게 되고 회계투명성이 악화되며, 회계투명성 악화는 투자위험 증가로 자본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자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어 수익성이 악화된다.

감사업계에서 낮은 회계투명성의 원인으로 저가수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가수입이 문제라는 인식은 정부당국에서도 동의하고 있으나, 지정감사제와 같이 감사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IMF 사태 이후에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원칙상 사기업 간의 계약인 감사를 국가가 전부 지정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으며, 지정감사제 등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상승하면 감사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계의 거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감사업계는 실질적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은 현실이나 저가수입으로 계약한 감사인의 사례를 토대로 저가수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절한 감사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적절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없

고, 이러한 문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가수입이 감사품질을 감소시킨다는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가수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감사계약이 단순히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가수입인지 여부는 연도별, 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산업별로 감사보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감사보수의 평균보다 낮은 감사보수로 계약한 감사인을 저가수입 감사인으로 정의하여, 이러한 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를 검증하였다.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감사보수는 감사자원 투입을 감소시켜 감사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업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로 적용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 2.1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Simmunic(1980)은 피감사기업 규모, 종속회사 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비율 등 피감사기업 특성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했다[15].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의 전문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의 결합확률로 정의했다[3].

우리나라에서 감사보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은 1999년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수(1999)는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서로 다를 때 감사품질에 따라 차별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균형을 분석하였고,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일정한 수준의 차별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분리균형이 존재하며 높은 감사품질의 감사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고했다[11].

권수영 등(2001)은 1999년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인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했으며,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도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액의 비중, 감사인의 평판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9].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sup>1)</sup>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감사기업의 자산증가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노준화(2015)는 감사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감사보수가 낮은 원인 중의 하나이며, 감사시장에서 가격이 유일한 경쟁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14]. 김정원 등(2017)은 한국과 미국의 감사보수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한국 기업들의 감사보수는 미국에 비해 자산 단위당 기준으로 약 29%, 매출액 단위당 기준으로 약 27% 수준으로 보고했으며,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감사보수 추정모형을 통한 기대보수보다 약 42% 수준의 감사보수를 수취하는 것으로 보고했다[7].

## 2.2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Becker et al.(1988)은 대형감사인인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품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며, 대형감사인의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결과를 보고하며 대형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1].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감사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재량적 발생액을 많이 사용했다[5,17]. 권수영 등(2005)은 감사시간의 초과 투입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며, 초과감사시간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낮은 결과를 보고하였다[10]. 손성규 등(2006)은 대형감사인 중 2개 법인의 실제 직급별 감사시간 자료를 사용하여 음(-)의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에 감사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법인의 모든 직급의 총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을 억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16].

## 2.3 재량적 발생액에 관한 연구

Jones(1991)은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 모형을 최초로 개발하여 보고하였다[6]. 보통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은 주로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나[2,13], 본 연

구에서는 [1]에 따라 감사품질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Dechow et al.(1995)은 Jones의 모형에 신용매출로 인한 발생액 변수를 투입하여 설명력을 개선한 모형을 개발했으며, 해당 모형을 일반적으로 수정 Jones모형으로 부른다. 그들이 제시한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잔차항( $\epsilon$ )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사용한다[4].

$$\frac{TA_t}{A_{t-1}} = \beta_1 \frac{1}{A_{t-1}} + \beta_2 \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beta_3 \frac{PPE_t}{A_{t-1}} + \epsilon_t$$

$TA$  : 총발생액,  $A$  : 총자산,  $\Delta REV$  : 매출액 변화분  
 $\Delta REC$  : 매출채권 변화분,  $PPE$  : 유형자산

Kothari et al.(2005)은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경영성과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이익률(ROA)을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에 포함한 성과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마찬가지로 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잔차항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사용한다[8].

$$\frac{TA_t}{A_{t-1}} = \beta_1 \frac{1}{A_{t-1}} + \beta_2 \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beta_3 \frac{PPE_t}{A_{t-1}} + \beta_4 ROA_t + \epsilon_t$$

$ROA$  : 총자산이익률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의 오류로 인한 연구 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 Jones모형과 성과조정모형을 각각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 3. 연구 설계

### 3.1 가설 설정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공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년 외부감사 수입료 분석 및 시사점”, 2013.09.10.

해 경영자에 비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의 투자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는 명확하게 판단하게 힘들다.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투자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두 이해집단이 아닌 제3의 대리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하는 집단이 외부감사인이다. 외부감사인은 경영자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충족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감사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외부감사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논란은 감사 대상인 기업이 감사 주체인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기업과 별개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행위는 감사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감사보수를 적정수준보다 상당히 낮게 제시하는 저가수입의 문제이다. 외부감사인이 저가수입을 통해 감사업무를 수입한다면, 외부감사인은 해당 감사계약에서 감사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적정 수준의 감사자원보다 낮은 수준의 감사자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고, 감사자원을 적게 투입하면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저가수입이 감사품질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히 저가수입을 낮은 감사보수로 판단한다면 산업별, 연도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도-산업별로 표본을 분할하여, 각 하위표본에서 평균보다 낮은 감사보수로 계약한 감사인을 저가수입 감사인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저가수입한 감사인은 수취하는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감사업무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사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가수입은 감사자원 투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감사자원 투입 감소는 감사품질의 악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저가수입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감사품질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 3.2 연구 설계

먼저 저가수입 감사인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연도-산업별 평균 감사보수보다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을 수임한 감사인을 저가수입 감사인으로 정의한다. 저가수입 감사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과정을 따른다. 첫째, 감사인의 감사보수를 해당 기업의 총자산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의 총자산을 사용하여 감사보수를 표준화한다. 둘째, 전체 표본을 연도-산업별로 분할하여 연도-산업별 하위표본을 만들고, 각 표본별로 감사보수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의 평균값을 구한다. 셋째, 각 하위표본별 감사보수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평균보다 낮은 기업을 선택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저가수입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으로 선정하여 1의 값을 부여하며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은 0의 값을 부여한다.

본 연구는 저가수입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이므로 감사품질에 대한 측정치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이하 DA)을 사용한다. Becker et al.(1988)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감사인이 억제하는 능력을 감사품질의 하나로 인식하였고, 대형감사인의 감사품질의 상대적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DA를 사용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DA가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검증하여, 저가수입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낮은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DA = \beta_0 + \beta_1 LOW + \beta_2 BIG4 + \beta_3 SIZE + \beta_4 LEV + \beta_5 CFO + \beta_6 LOSS + \beta_7 OPN + \beta_8 LACC + \beta_9 GRW + \beta_{10} FIRST + \beta_{11} LIST$$

DA: 수정Jones모형을 통해 산출한 DA와 Kothari성 과조정모형을 통해 산출한 DA

LOW: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BIG4: 대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EV: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CFO: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LOSS: 당기에 적자가 발생했으면 1, 아니면 0

*OPN*: 당기에 비적정의견이면 1, 아니면 0  
*LACC*: 전기 총발생액  
*GRW*: 매출액 성장률  
*FIRST*: 초도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LIST*: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DA)을 사용하며, 다양한 DA 측정모형 중에서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수정 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이 제시한 성과조정모형을 사용하였다. *LOW* 변수는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서 앞서 언급한 절차를 따라 선정되며, 본 연구의 주된 가설검증변수이다.

모형의 통제변수는 마희영 등(2012)의 모형이 제시한 변수를 대부분 사용하였다[12]. 대형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감사인이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SIZE*는 기업규모, *CFO*는 영업현금흐름, *LOSS*는 적자 여부, *OPN*은 당기 감사의견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LACC*는 전기 총발생액으로서 발생액 반전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GRW*는 성장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FIRST*는 초도감사인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LIST*는 상장된 시장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3.3 연구 표본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2002년부터 감사보수에 관한 자료를 TS-2000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므로 2002년부터 표본기간을 시작하며, 가장 최근까지 입수할 수 있는 연도가 2016년이므로 2016년을 마지막 연도로 하여 총 15개 연도를 표본기간으로 한다.

표본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며, 12월 결산기업, 연구에 필요한 재무정보와 외부감사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다. 최종 연구 표본은 10,242개이다.

## 4. 실증 분석

### 4.1 기술통계량

전체 표본의 개수는 10,242개로서 기술통계량은 <Table 1>와 같다.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Variable	Mean	Std. Dev.	Median	Min	Max
DA_J	-0.002	0.097	0.000	-0.336	0.290
DA_K	0.000	0.079	-0.002	-0.222	0.249
LOW	0.541	0.498	1	0	1
BIG4	0.721	0.449	1	0	1
SIZE	18.966	1.481	18.674	16.482	23.761
LEV	0.415	0.194	0.414	0.056	0.879
CFO	0.050	0.086	0.051	-0.224	0.291
LOSS	0.228	0.420	0	0	1
OPN	0.003	0.058	0	0	1
LACC	-0.030	0.135	-0.019	-4.688	1.355
GRW	0.105	0.340	0.060	-0.599	1.923
FIRST	0.190	0.392	0	0	1
LIST	0.452	0.498	0	0	1

*DA\_J*는 수정Jones 모형을 통해 추정된 DA이며 *DA\_K*는 성과대응모형을 통해 추정된 DA이다. 두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각각의 DA의 평균과 중위수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통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2 상관분석

연구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감사품질 변수인 *DA\_J*와 *DA\_K*는 저가수입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들의 미하는 *LOW*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감사보수가 낮으면 감사품질이 저하된다는 이론과 같이 저가수입으로 계약한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DA\_J*와 *DA\_K*는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과 거의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통제 목적을 위해 투입되는 변수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DA_J	DA_K	LOW	BIG4	SIZE	LEV	CFO	LOSS	OPN	LACC	GRW	FIRST
DA_K	0.831(0.00)											
LOW	0.044(0.00)	0.027(0.01)										
BIG4	0.001(0.95)	-0.014(0.15)	-0.150(0.00)									
SIZE	0.015(0.12)	-0.009(0.36)	-0.383(0.00)	0.310(0.00)								
LEV	-0.111(0.00)	0.078(0.00)	-0.177(0.00)	0.082(0.00)	0.243(0.00)							
CFO	-0.457(0.00)	-0.790(0.00)	-0.038(0.00)	0.052(0.00)	0.071(0.00)	-0.215(0.00)						
LOSS	-0.344(0.00)	0.000(0.98)	-0.017(0.09)	-0.054(0.00)	-0.117(0.00)	0.250(0.00)	0.349(0.00)					
OPN	-0.048(0.00)	-0.014(0.16)	0.002(0.84)	0.009(0.34)	-0.020(0.04)	0.027(0.01)	0.016(0.11)	0.050(0.00)				
LACC	0.125(0.00)	-0.002(0.85)	0.033(0.00)	0.001(0.92)	0.061(0.00)	-0.087(0.00)	0.080(0.00)	-0.165(0.00)	-0.028(0.01)			
GRW	0.104(0.00)	0.107(0.00)	-0.022(0.03)	-0.004(0.71)	-0.029(0.00)	0.035(0.00)	0.084(0.00)	-0.178(0.00)	-0.029(0.00)	0.060(0.00)		
FIRST	0.012(0.23)	0.003(0.79)	0.024(0.02)	0.037(0.00)	-0.020(0.05)	0.024(0.01)	0.013(0.20)	-0.014(0.17)	0.011(0.26)	-0.023(0.02)	0.038(0.00)	
LIST	0.008(0.43)	-0.001(0.94)	0.059(0.00)	0.246(0.00)	0.599(0.00)	0.178(0.00)	0.005(0.62)	-0.085(0.00)	-0.018(0.06)	0.035(0.00)	-0.073(0.00)	0.027(0.01)

\* t-values are presented in parentheses

### 4.3 회귀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와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3>는 종속변수로 수정Jones 모형을 통해 추정된 DA(DA\_J)를 사용하였으며, <Table 4>는 성과대응모형을 통해 추정된 DA(DA\_K)를 사용하였다.

<Table 3>를 살펴보면, 가설검증변수인 LOW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0.005이며 t값을 2.83으로 양(+)의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DA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론적으로 감사보수가 낮으면 감사자원의 투입이 감소하고, 감사자원 투입의 감소에 따라 감사품질이 감소하게 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연도-산업별로 평균에 미달하는 감사보수로 계약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감사품질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변수는 대체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F값이 1003.59로 유의한 값을 보이므로 연구모형의 설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 R<sup>2</sup>가 51.85%로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감사품질에 상당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DA 추정에 따른 연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DA 추정의 다른 방법인 성과대응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DA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검증변수인 LOW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0.003이며 t값은 2.64로서 양(+)의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가수입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며, DA 추정방법의 차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왜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used by DA\_J

	Coef.	t	p-value
Constant	-0.006	-0.42	0.677
LOW	0.005	2.83	0.005
BIG4	0.003	1.78	0.076
SIZE	0.005	6.95	0
LEV	-0.066	-17.38	0
CFO	-0.769	-91.57	0
LOSS	-0.123	-68.60	0
OPN	-0.046	-3.93	0
LACC	0.000	-0.58	0.563
GRW	0.019	9.59	0
FIRST	0.004	2.40	0.016
LIST	-0.013	-6.83	0
F-value		1003.58	
adj_R <sup>2</sup>		0.5185	
N		10,242	

<Table 4> Regression Analysis used by DA\_K

	Coef.	t	p-value
Constant	-0.014	-1.72	0.085
LOW	0.003	2.64	0.008
BIG4	0.003	3.06	0.002
SIZE	0.004	9.08	0
LEV	-0.025	-10.94	0
CFO	-0.841	-165.07	0
LOSS	-0.052	-47.75	0
OPN	-0.013	-1.77	0.076
LACC	0.000	-1.87	0.061
GRW	0.031	25.70	0
FIRST	0.002	1.80	0.072
LIST	-0.010	-8.50	0
F-value	2552.26		
adj_R <sup>2</sup>	0.7326		
N	10,242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연도-산업별로 평균에 미달하는 감사보수로 계약한 감사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감사품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면 자본시장의 감사품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과다한 시장 경쟁을 자제시키고 적절한 감사보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1999년에 감사보수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는 감사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론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는 투입되는 감사자원의 감소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낮은 감사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수입에 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를 검증하였다. 단순히 감사보수가 낮다고 해서 적절한 감사보수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산업별로 감사보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그 평균값에 미달하는 감사보수를 수취한 감사인을 저가수입 감사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재무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 저가수입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재무

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가수입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감사보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약화의 원인 중의 하나로 낮은 감사품질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감사보수가 감사시장의 주된 경쟁요인으로 작용하면 저가수입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 저가수입이 감사품질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저가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자가 인식하지 못한 다른 변수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측정오차가 존재하여 왜곡된 연구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2017 Post-Doc. Development Program』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REFERENCES

- [1] Becker, G.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5, No. 1, pp. 1-24, 1988.
- [2] Baek, J. H. and J. S. Choi, "The Effect of Transaction to the Related-Party on the Earnings Management by Considering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209-216, 2017.
- [3] DeAngelo, L.,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 No. 3, pp. 183-199, 1981.
- [4]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70, No. 2, pp. 193-225, 1995.

[5] Francis, J. R. and J. Krishnan,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6, No. 1, pp. 135-166, 1999.

[6] Jones, J. J.,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view*, Vol. 29, No. 1, pp. 193-228, 1991.

[7] Kim, J. W. and Y. W. Ko, "A Comparison of Audit Fe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 26, No. 3, pp. 219-243, 2017.

[8] Kothari, S. P., and A. J. Leone, and C. E. Wasley,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7, No. 1, pp. 163-197, 2005.

[9] Kwon, S. Y. and M. C. Kim, "Determinants of Audit Fee and Effect of Audit fee Deregul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26, No. 2, pp. 115-143, 2001.

[10] Kwon, S. Y., M. C. Kim, and T. J. Jung, "The Effect of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on Audit Fees",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30, No. 4, pp. 47-76, 2005.

[11] Lee, S. S., "A Study on Audit Quality and Audit Fee",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24, No. 3, pp. 53-113, 1999.

[12] Ma, H. Y., S. Y. Kwon., and J. Y. Jeong, "A Case Study on Audit Quality using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Hours",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 21, No. 1, pp. 259-287, 2012.

[13] Moon, H. J., "A Comparison of Earnings Quality between KOSPI Firms and KOSDAQ Fir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129-141, 2017.

[14] Rho, J. H., "Audit Fee and Compilation Services: Problems and Solutions",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 24, No. 3, pp. 297-326, 2015.

[15] Simmunic, D., "The Audit Services Market: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18, No. 1, pp. 161-190, 1980.

[16] Son, S. K., Y. Y. Lee., and Y. I. Shin, "Research on Audit Hour by Rank, Audit risk, and Audit

Quality",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and Auditing*, Vol. 44, pp. 335-362, 2006.

[17] Yoon, M. and J. S. Lee, "The Effect of PCAOB on Auditing Fe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111-120, 2016.

신 찬 휴(Shin, Chan Hyu)



- 2008년 8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사)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경영학석사)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경영학박사)
- 2017년 2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연수연구원

- 관심분야 : 재무회계, 회계감사
- E-Mail : chshinv@daum.net

김 정 교(Kim, Jeong Kyo)



- 1977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79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91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1983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경영컨설팅
- E-Mail : jkim@pusan.ac.kr